

마르코 복음서 11장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다(마태 21,1-11; 루카 19,28-38; 요한 12,12-19)

- 1 그들이 예루살렘 곧 올리브산 근처 벳파게와 베타니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며
- 2 말씀하셨다. “너희 맞은쪽 동네로 가거라. 그곳에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어린 나귀¹⁾ 한 마리가 매여 있는 것을 곧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풀어 끌고 오너라.
- 3 누가 너희에게 ‘왜 그러는 거요?’ 하거든, ‘주님께서 필요하셔서 그러는데 곧 이리로 돌려보내신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 4 그들이 가서 보니, 과연 어린 나귀 한 마리가 바깥 길 쪽으로 난 문 곁에 매여 있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푸는데,
- 5 거기에 서 있던 이들 가운데 몇 사람이, “왜 그 어린 나귀를 푸는 거요?” 하고 물었다.
- 6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일러 주신 대로 말하였더니 그들이 막지 않았다.
- 7 제자들은 그 어린 나귀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 그 위에 자기들의 겹옷을 얹어 놓았다. 예수님께서 그 위에 올라앉으시자,
- 8 많은 이가 자기들의 겹옷을 길에 깔았다. 또 어떤 이들은 들에서 잎이 많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깔았다.
- 9 그리고 앞서가는 이들과 뒤따라가는 이들이 외쳤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 10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지극히 높은 곳에 호산나!”
- 11 이윽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곳의 모든 것을 둘러보신 다음,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열두 제자와 함께 베타니아로 나가셨다.

마태오 복음서 21,1-11 해설 참조.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다(마태 21,18-19)

12 이튿날 그들이 베타니아에서 나올 때에 예수님께서서는 시장하셨다.

1) 즈카 9,9 : 딸 시온아, 한껏 기뻐하여라. 딸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보라, 너의 임금님이 너에게 오신다. 그분은 의로우시며 승리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겸손하시어 나귀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13 마침 오히려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멀리서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무엇이 달렸을까 하여 가까이 가 보셨지만, 잎사귀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무화과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14 예수님께서서는 그 나무를 향하여 이르셨다. “이제부터 영원히 어느 누구도 너에게서 열매를 따 먹는 일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들었다.

1)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선한 열매 없는 당시의 형식적 종교 생활을 단죄하시는 교훈적 의미가 있다. 하느님께서 열매 없는 나무를 단죄하신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앙은 위선이다.

2) 마태오 복음서 21,18-19 해설 참조.

성전을 정화하시다(마태 21,12-17; 루카 19,45-48; 요한 2,13-22)

15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님께서서는 성전에 들어가시어, 그곳에서 사고팔고 하는 자들을 쫓아내기 시작하셨다. 환전상들의 탁자와 비둘기 장수들의 의자도 둘러엎으셨다.

16 또한 아무도 성전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지 못하게 하셨다.

17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의 집은 모든 민족들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18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그분을 없앨 방법을 찾았다. 군중이 모두 그분의 가르침에 감탄하는 것을 보고 그분을 두려워하였던 것이다.

19 날이 저물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 밖으로 나갔다.

마태오 복음서 21,12-17 해설 참조.

말라 버린 무화과나무의 교훈(마태 21,20-22)

20 이른 아침에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말라 있는 것을 보았다.

21 베드로가 문득 생각이 나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보십시오. 스승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라 버렸습니다.”

22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느님을 믿어라.

23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서 저 바다에 빠져라.’ 하면서,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않고 자기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24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며 청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25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누군가에게 반감을 품고 있거든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²⁾

26 .

1)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2) 마태오 복음서 21,20-22 해설 참조.

예수님의 권한을 문제 삼다(마태 21,23-27; 루카 20,1-8)

27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님께서 성전 뜰을 거닐고 계실 때,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과 원로들이 와서,

28 예수님께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요? 또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소?”

29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에게 한 가지 물을 터이니 대답해 보아라. 그러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해 주겠다.

30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대답해 보아라.”

31 그들은 저희끼리 의논하였다. “‘하늘에서 왔다.’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 하고 말할 터이니,

32 ‘사람에게서 왔다.’ 할까?” 그러나 군중이 모두 요한을 참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군중을 두려워하여,

33 예수님께 “모르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1) 예수님의 권위가 사람에게서 온 것인지, 아니면 하늘에서 온 것인지를 질문한 것이다. 사람의 권위는 땅에 속한 것으로, 상대적이고 제한적이며 오류가 있는 권위이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온 권위는 하느님에게 속한 것으로, 절대적이고 무류성이 있는 권위이다.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은 예수님을 알기 위한 진지한 질문이 아니라, 흠잡기 위한 질문이다.

2) 마태오 복음서 21,23-27 해설 참조.

2) 에페 4,32 : 서로 너그럽고 자비롭게 대하고,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콜로 3,13 :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참아 주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